

카투사 격주간

1976년 6월 1일 창간

THE KATUSA, A BI-WEEKLY PUBLICATION

2003년 5월 첫 번째 28권 8호

이번 호에는...

2면 군관련 소식

백선엽대장리더십상수여
17항공여단패밀리데이 행사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4,5면 부대 탐방

2003 카투사/미군 친선주간



6면 자유 공간

이현규의 축구이야기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8면 안녕하세요

오주은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5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한미군 주임원사 이취임식



Area II PAO Sgt. Carmen L. Burgess

Benjamin C. Palacios 주임원사가 8군본사 Marcus B. Anderson 주임원사를 통해 새로 취임하는 Troy J. Welch 주임원사에게 깃발을 전달하고 있다.

Troy J. Welch 주임원사가 5월 2일 용산 나이트필드에서 열린 이취임식 행사를 통해 Benhamin C. Palacios 주임원사로부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미8군의 최고 부사관직을 물려받았다.

Palacios 주임원사는 31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서울의 한 개인회사에서 일할 예정이다.

Welch 주임원사는 23지원단 주임원사로 한국에서 복무했으며 최근에는 19전지구역사령부 주임원사직을 맡고 있었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사령관 Leon J. LaPorte 대장은 행사에서 부사관들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특히 오늘날의 군대에서 주임원사직이 갖는 비중을 강조하였다.

"저와 제 아내는 Palacios 주임원사 내외분이 남겨 놓으신 발전을 계속해서 이를 것을 다짐합니다." Welch 주임원사는 말했다.

LaPorte 대장은 "그는 한국에 있었던 뛰어난 주임원사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며 "그가 이뤄놓은 업적을 볼 때 앞으로 모두를 위한 뛰어난 주임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elch 주임원사는 한국 외에도 하와이의 25보병사단, 미본토의 108항공여단, 1보병사단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근무공로훈장(Meritorius Service Medal), 육군포창훈장(Army Commendation Medal), 육군공로훈장(Army Achievement Medal)등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Area II PAO Sgt. Carmen L. Burgess

TV 를 통해 알려진 카투사생활

지난 4월 10일 부터 16일까지 1주간에 걸쳐, 'TV 내무반 - 신고합니다' 촬영팀이 '카투사 편' 촬영을 위해 Camp Hovey, Camp Bonifas, Camp Jackson 등 7개 부대를 찾았다. 'TV 내무반 - 신고합니다' 촬영팀은 각 부대에서 카투사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촬영하고, 비디오 클립을 이용하여, 매주 방영하는 이 프로그램에 카투사의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김영균 PD는 "이들은 지휘를 미군에게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카투사 또한 병역의 의무를 하고,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하며 카투사의 어떤 모습을 찍으려 했는지 설명했다.

1/9 보병대대 A 중대 소속의 김민중 병장은 "요즘 한국과 미군 사이가 나쁜데, 미군이 참여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과 미군의 사이가 조금이나마 좋아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고 촬영 소감을 밝혔다. 김민중 병장은 "사회에서는 카투사가 바쁘게 일하고 힘든 생활을 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오로지 집에 자주 가고 편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식이 이 방송을 통해서 바뀌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카투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촬영을 할 때, 재미 위주로 찍어

서 카투사의 거짓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카투사의 모습은 그대로의 모습을 담았다면, 카투사에 대한 인식이 저절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1/9 보병 B 중대소속의 노창래 병장이 말했다.

이번 촬영에는 카투사와 일일 카투사 역을 맡은 MC 오주은뿐 아니라 미군들도 촬영에 참여했다. 많은 부대를 돌아다니며 촬영을 한 'TV 내무반 - 신고합니다' 이지만 미군이 촬영에 참여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라 활기차면서도 긴장감이 돌았다. 오주은에게 기계를 닦고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을 맡은 1/9 보병대대 B 중대색션 리더인 Johnson Edward 하사는 "이런 촬영에도 미군과 한국이 모두 함께 참여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내 자신이 처음으로 TV에 나오는



미8군 공보실 일병 윤종필

1/9 보병대대 A 중대 소속의 김민중 병장이 일일 카투사 오주은에게 장비 정비를 가르쳐주는 장면을 촬영중인 모습

모습이 기다려지고, 빨리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영균 PD는 "촬영을 준비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나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나 미군 쪽에서나 예상보다 힘들게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양측 모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없이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8군 공보실 일병 윤종필

최초의 백선엽 대장 리더십상 수여

6.25당시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4성장군인 백선엽 대장의 이름을 따 제정된 백선엽 장군 리더십상이 용산에서 열린 Area II 카투사/미군 친선주간 개막식에서 8명의 카투사들에게 최초로 수여되었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약 1,000명의 군인과 가족에게 행한 연설에서 한국동란에 참전한 카투사 43000명중 8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카투사와 미군간의 관계는 돈독한 한미관계의 표상이라고 했다.

"카투사는 창설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본인은 카투사/미군 친선주간 행사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 대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우리의 임무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는 또한 양국의 화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 8군 사령관 Charles C. Campbell 중장도 미 8군의 임무수행에 기여한 카투사들의 노고에 대해 "카투사 제도는 미 8군에 충명하고 능력있고 사기충찬한 한국군 병사들을 응원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전력을 한층 증강시키고

있다"고 칭찬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미 연합군은 여러분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Campbell 중장은 카투사 수상자들이 뛰어난 업무능력과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백선엽 대장 리더십 어워드를 최초로 수상한 8명의 카투사들은 1/43방공포대대 박창 병장, 498 지원대대 4병참 중대 박태현 병장, 498 지원대대 305 병참중대 조정호 상병, 17 병기중대 임근 상병, 194 정비대대 348 병참중대 이국형 상병, 6 항공여단 본부중대 최병준 상병, 19 전지사 본부중대 임수봉 상병, 501 지

원단 한유돈 병장이다. "카투사 병사들은 한반도 안정의 핵심입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복무하는 그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Cambell 중장이 말했다.

Eighth Army PAO
Sgt. Russell C. Bassett



카투사 신문 강병삼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미 8군 사령관 Charles C. Campbell 중장이 8명의 카투사에게 백선엽 리더십상을 수여하고 있다.

카투사 가족, 친지 부대방문 행사



미8군 공보실 일병 윤종필
164 항공교통업무단 본부중대 소속의 김현성 상병이 어머니와 여자친구에게 전시해 놓은 항공기를 보여주고 있다.

5월 5일 성남의 K-16 기지에서는 '같이 갑시다'기획의 일환으로 카투사 패밀리 데이 행사를 실시하였다. 130여명의 17항공여단 카투사들과 미군들이 가족, 친구, 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투사 패밀리 데이 행사의 목적은 그들의 아들, 친구, 애인인 카투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동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라고 K-16 시설 코디네이터인 Harry H. Park씨는 말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카투사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또 미군부대와 지역사회가 좀더 건전한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17항공여단장 Anne F. Macdonald 대령의

개회사로 시작해 군용기 전시, UH-60 시뮬레이터 체험 그리고 막사 방문 등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부대 식당에서 특별히 준비된 식사를 하고 태권도 시범을 보는 것으로 의미있는 행사는 막을 내렸다.

17항공여단 본부중대의 이명중 병장은 평소에 자신이 일하는 곳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자랑스럽고 이런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7항공여단 본부중대 장성엽 병장의 친구로서 부대를 방문한 우정 씨는 "카투사들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친구가 일하는 곳을 보고 나니 그가 하는 일이 다른 군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친구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사무실 동료 카투사의 가족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164 항공교통업무단(Air Traffic Service Group) 화생방실의

Brittanna Kesler 상병은 "카투사와 그 가족들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더욱 가까워지고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해 더욱 잘 알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행사가 좀더 자주 열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우정 씨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했다.

"최근 있었던 한국 시민들과 미군 사이의 갈등 때문에 미국인들을 그다지 좋지 않게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록 짧은 시간일지나마 미군 병사와 이야기 해봤는데, 그는 저를 매우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이것은 미군에 대한 새로운 인상을 갖게 했습니다."

미8군 공보실 일병 윤종필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공판 미국방성 공인 신문임. 주한 미군 인세창에서 1회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배속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견해와 의견은 미 육군성의 그것은 아님. 카투사지는 격주간지로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발행됨. 사무실은 용산 미8군 부대내 2372건물 107호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7196/4683/3537(fax). 모든 글은 용산구 체신청 직영 우체국 사서함 59호 미8군 본부중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전자우편 주소는 kimddong@usfk.korea.army.mil임.

- 미8군 사령관
- 중장 찰스 씨 캠펬
- 한국군지원단장
- 대령 김덕근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 한국군지원단 정훈과장
- 대위(진) 이세희
- 편집장
- 병장 김대동
- 기자
- 병장 이만석
- 상병 강병삼
- 일병 장중모



Eighth U.S. Army Commander
LTG Charles C. Campbell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LTC Steven A. Boylan
Command Information OIC
MAJ Lee M. Packnett
Editor
SGT Kim, Dae Dong
Staff Writers
SGT Lee, Man Suk
CPL Kang, Byung Sam
PFC Jang, Seung Mo
Special Assistant
Mr. Oh, S. C.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c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Room 107 Bldg. 2372, Yongsa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7196/4683/3537(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s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parky@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 kimddong@usfk.korea.army.mil

■ 군상식

중-86 식 IFV

장갑차는 86 식 장갑차는 구 소련이 1960 년대의 핵전상황에 대비한 고속공격전략에 맞춰 개발한 BMP-1의 설계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73 mm 주포와 AT-3 사거(Sagger)의 중국 버전인

을 발사할 수 있으며 유효사거리는 800 m 이나 1,300 m 에서도 탱크를 파괴할 수 있다.

HJ-73 對전차미사일용 레일식 발사대는 주포 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최대사거리는 3,000 m 이다. 또한 포탑에 7.62 mm 동축기관총이 설치되어 있다.

추진엔진은 300 마력의 수냉식 디젤엔진을 사용하며 이는 BMP-1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다. 엔진은 차량 전방우측에



제공사진

중국 86식 전투보병차량이 기념관 앞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

HJ-73을 함께 운용하고 있다.

86식 장갑차는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군 A-10 공격기에게 무참히 유린당해 시대에 뒤떨어진 모델임이 입증된 바 있다.

주포는 73 mm 저압활강포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탱크 공격에 사용된다. 최대사거리 800 m 에 40발을 적재한다. 주포는 로켓추진식 對전차공격용 고폭탄

위치하고 있으며 조종수용 해치는 좌측에 있다.

포수용 해치는 포탑지붕의 좌측에 있으며 포탑뒤쪽에는 병력탑승칸과 통하는 4 개의 커다란 해치가 있다. 이동병력은 차량 후미에 설치된 2 개의 대형 출입구를 이용해 승하차한다. 병력탑승칸 양쪽에는 4 개씩의 사격용 포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후미에도 1 개가 자리잡고 있다.

차량은 6개의 로드휠과 3개의 궤도지용 롤러 및 구동용 스프로킷을 이용해 기동한다.

86 식 장갑차는 수륙양용이며 워터제트보다는 궤도를 이용해 추진하며 빠른 기동력의 탱크를 추격하기 위한 작전반경과 속도를 갖도록 설계됐다.

승무원은 3명이며 차량장은 탑승한 병력들의 지휘도 담당하며 탑승병력은 사격용 포트를 이용해 기동간 소총이나 기관총 사격을 가할 수 있다.

차량은 화생방 무기로부터 보호되도록 설계됐으며 외부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작전에 임할 수 있다. 또한 적외선 서치라이트, 외부관측용 잠망경, 야간투시장비 등을 장착하고 있으며 배기가스를 이용한 연막차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빈약한 장갑은 對전차미사일과 탱크 주포의 사격에 매우 취약하며 소형화를 위한 설계로 인해 엔진실이나 포탄적재공간 등이 비좁고 피격시 파괴될 우려가 매우 높은 단점이 있다.

또한 병력탑승칸의 장갑도 매우 취약해 중화기의 집중사격시 안전보장이 어렵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걸프전에서는

A-10 공격기로부터의 공격에 탑승자 전원이 몰살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특히 야간에 미군의 관측을 피하기 위해 모래밀로 숨어있을 경우에도 A-10 기의 공격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는 일이 잦았다.

또한 차체가 높아 적으로부터의 관측이 용이하며 화력부족으로 적 탱크나 보병전투차량과의 교전시 파괴될 우려가 높다. 포탄장전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고장이 잦은 것도 취약점으로 나타나 있으며 험로주행시 73 mm 포의 정확한 사격은 불가능하다. 다만 HJ-73 對전차미사일만이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나 재장전과정이 복잡하고 화생방방호상태에서는 재장전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제공사진

변형 모델인 WZ-504 대전차유도미사일차량

카투사들의 한마디

남자친구로서 카투사는?



윤현수
회사원

제 남자친구는 8군본사 단본부 소속의 김승범 병장이에요. 남자친구가 카투사라서 좋은 점이 많아요. 먼저 부대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카투사라고 하면 이미지도 깔끔하고 좋잖아요. 또한 시간을 허비할지도 모르는 군생활이지만 카투사들은 특히 군생활을 하면서 영어 등 배우는 것도 많아 참 좋은 것 같아요.



박소형
경희대학교

제 남자친구는 501정보여단 524정보대대 소속의 오영민 일병이에요. 남자친구가 카투사라서 좋은 점은 평소에는 각자의 삶에 충실하다가 남자친구가 외박을 나오면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카투사들은 다들 영어도 잘하고, 멋있고, 씩씩하고 능률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 남자친구가 최고지요.



강지은
연세대학교

제 남자친구는 498지원대대 본부중대 소속의 전영민 상병이에요. 남자친구가 카투사라서 이렇게 부대에 행사가 있으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사회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카투사들은 부대에서 즐겁게 군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남자친구에 대해 말하자면, 참 사랑하고 친절하다는 점!



백종은
고려대학교

저는 남자친구가 없지만, 카투사하면은 군인이면서도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영어도 잘하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서 남자친구가 카투사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군 부대에 처음으로 들어와 보았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좋았어요. 여러 행사도 있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가장 보기 좋은 것은 자유로운 분위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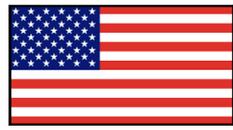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장승모

KATUSA/ U.S. SOLDIERS' FRIENDSHIP WEEK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강병삼



카투사 신문 장승모



카투사 신문 장승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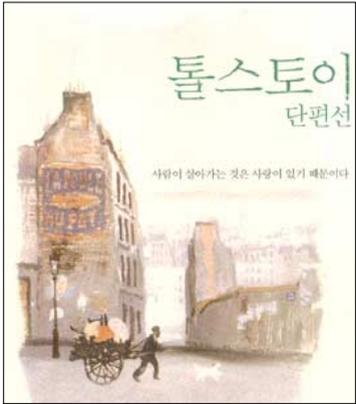
카투사 신문 강병삼

-TOGETHER WE STAND-

5월 초부터 중순까지 Area I을 제외한 각 지역대에서는 2003년 카투사/미군 친선주간 행사를 가졌다. 카투사들과 미군들은 한 팀을 이뤄 소프트볼, 씨름, 농구, 축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의 운동 경기들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악천후와 그로 인한 좋지 않은 경기장 사정 등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경기를 펼쳐 보였다. 한 팀을 이뤄 경기를 펼치면서 이들은 서로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전우애를 다질 수 있었으며, 각자의 부대에 대한 소속감 또한 배양할 수 있었다. 장기자랑 시간에도 그들은 한 팀을 이뤄 그동안 연습한 결과를 많은 병사들 앞에서 펼쳐 보였다. 또한 각 부대별로 도자기, 김치 만들기, 전통 의상 전시, 전통 혼례 재현, 민속 놀이 체험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도 있었다. 한편, 국방부 의장대, 연예인들의 공연 등이 행사주간 동안 이어지며 카투사/미군 친선주간을 축하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였다.



카투사 신문 장승모



BESTSELLER

톨스토이 단편집

L.N. 톨스토이 / 인디북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체제의 달성의 길에 대한 비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뛰어난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보 이반>, <두 노인> 등을 비롯한 12편의 단편들을 수록하였다.

민중의 지적발달과 교육을 위해 쓴 톨스토이의 이 단편들은 윤리적인 모순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참된 휴머니즘이 담겨있다. 어지러운 요즈음 마음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책!



WEBSITE

파인 민화연구소

www.minhwa.co.kr

세계화, 지구촌화 되어가는 요즘일수록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잊지 말아야 할 때이다. 이 사이트는 우리의 토속신앙과 세계관, 주술신앙을 엿볼 수 있는 민화를 소개하는 사이트이다. 책이나 TV 등을 통해서 한 번 즈음은 보았을지 모르나, 산신도, 축수도 등 다양한 민화를 수집, 제공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주위 미군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사이트!

■ 카 투 사 기 고 문

이현규의 축구 이야기

축구의 본고장

->English Premiere League

-3월 첫번째 호에서 이어집니다

잉글랜드의 축구 문화

축구의 종주국인 만큼 잉글랜드의 축구 문화는 다른 나라들과는 분명 색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스날의 공격수이자 프랑스 국가대표팀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앙리 선수는 "세계에는 많은 축구 팬들이 있지만 직장을 마치고 양복 위에 유니폼을 입고 스카프를 두르며 축구장으로 가는 팬들이 존재하는 나라는 잉글랜드 뿐"이라는 말로 잉글랜드의 축구문화를 묘사했다. 충성심 강하고 꾸준한 잉글랜드 축구 팬들의 성향을 단 한마디의 인터뷰로 요약한 셈이다. 아내는 맘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도 한번 지지하게 된 축구팀은 죽을 때까지 서포트한다는 게 그들의 축구에 대한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아버지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이를 먹은 후 어떠한 축구팀을 고를 것인가에 관한 단 한번의 진지한 기회를 주는 것이 관례이다. 잉글랜드의 축구 문화는 평균 관중 동원 능력에서도 타 유럽과 큰 차이가 난다. 현재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주말 평균 관중은 3만5천명 수준이다. 최고의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평균 관중이 2만 9천명 대, 이탈리아의 세리에 A의 평균관중이 2만 5천명 대이다. 타 리그에서는 인기 팀들의 관중 점유도가 월등히 높아 관중의 독점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하위 팀 관중 평균에서 타 리그 보다 상당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 Pub에서 맥주 한잔과 함께 큰 화면에서 축구경기를 시청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 필자는 이들을 Football-minded people 이라고 부른다.



제공사진

에릭슨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수들의 훈련모습을 지켜보는 장면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했던 태극전사들

리버풀

런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구단은 유난히 한국 선수들과 많이 연계가 되었던 팀이다. 최용수 선수와 김도근 선수를 비롯, 최근의 김남일과 설기현 선수. 그리고 18세 이하 웨스트햄 유소년 팀에서 활동중인 이산 선수까지 수많은 선수들이 신문지상에 이름을 오르내렸다.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도인등 아시아 계열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인들의 분포도 상당히 이루어져있는 등 타 런던연고 프리미어리그 팀과는 조금 색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는 팀이다. 최용수와 김도근, 그리고 김남일 선수는 입단 테스트차 웨스트햄 구단의 문을 노크해 보았으나 실패하였고, 설기현 선수는 현재 디비전 1로 강등될 위기에 처해있는 웨스트햄 구단이 공격수의 부족으로 시달릴 때 임대영입을 고려했다는 루머가 있었다. 청소년 대표로 뽑혀 관심을 끌었던 이산 선수는 18세 이하 유소년팀으로 승격된 후 웨스트햄 구단과 정식 계약을 맺었으며, 최초의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를 꿈꾸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잉글랜드 클럽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지만, 잉글랜드 자국 내에서 가장 많은 팬을 갖고 있는 클럽은 리버풀이다. 헤이켈 참사 사건으로 리버풀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클럽이 각종 유럽 클럽 대항전에 5년 동안 참가할 수 없는 중징계를 받았다. 프랑스 출신 제라드 홀리에 감독을 영입한 이후 FA컵 우승과 워싱턴 컵 우승을 동시에 차지하는 등 그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부진을 만회하였으나 상대팀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공격을 퍼붓던 리버풀만의 공격축구 스타일이 사라지고 말았다. 설명이 필요 없는 오웬 선수를 비롯, 2002 월드컵 우리 나라와 폴란드 전에서도 출장했던 골키퍼 두백, 잉글랜드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제라드, 세네갈의 '연쇄살인범' 엘 하지 디우프 등이 있다.

첼시

서부런던을 연고로 하는 팀이다. 팀내 용병의 수가 자국 선수들 비율과 비슷해 가장 반잉글랜드적인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있기도 하다. 실제로 지지난 시즌 선발 출장 선수 11명을 모두 비잉글랜드 출신 선수로만 채워 경기를 치른 적도 있다. 런던 연고 클럽 중 아스날 다음으로 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네임 밸류 상으로는 어느 팀에도 뒤처지지 않은 팀이지만 팀의 결속력이 떨어져 우승경력이 없다는 것이 흠이다. 네덜란드의 하셀바인크와 쟈넨. 이탈리아의 졸라, 나이지리아의 바바야로. 프랑스의 데자이 등이 소속되어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제공사진

우리 나라와 잉글랜드의 국가대표 친선경기 장면

41 통신대대 일병 이현규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제 13 장

* 전기 기술자를 불러야겠어요.

생활 영어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영어를 잘 하시려면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에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미국(또는 영어권 국가)에선 영어로 표현하는구나"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전기 관련입니다. 간단한 건 손수 고칠 수 있지만 복잡한 건 당연히 '전기 기술자'를 불러야 하잖아요? 이럴 때 원어민은 어떤 표현을 쓰는지 볼까요.

Topic: "전기 기술자를 불러야해요."
We have to call an electrician.
주제연구)

electrician(전기 기술자)는 일상생활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기가 없는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끄적하죠? 우리나라에선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만 되도 '전기 기술자'라는 한국어 단어를 알 것입니다. 그럼 말을 바꿔보면 같은 또래의 미국 아이들도 electrician 이 뭔지 안다는 거죠.

A: What happened to the lights?
They are not working.

B: Did you check the main breaker?

A: Yes, I did but they are still not working.

B: Well we'll have to call an electrician then.

번역)

A: 전등이 왜 이러지? 켜지지 않는데.

B: main breaker(우리말로는 '두꺼비집'이라고 하죠.) 확인해 봤어?

A: 확인해봤지, 그런데 아직도 불이 안 켜져.

B: 그럼 할 수 없지. 전기 기술자를 불러야지 뭐.

* 방 새로 페인트 칠 해야겠어요.

우리나라에선 방에 벽지를 많이 바르지만 미국에선 방에 paint 칠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집이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페인트 칠이 더 예쁘거든요.

오늘은 그런 연습을 합니다.

Topic: " 방 새로 페인트 칠 해야겠어요."
번역)

"I think the rooms need to be painted."

주제연구)

오늘 표현 중, Hon! 을 봅니다. 이 표현은 부부끼리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honey 의 줄임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기야" 정도가 되지요. 물론 이 표현을 부부끼리 많이 쓰지만 귀여운 자기 자식을 부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A: Hon, I think the rooms need to be painted.

B: Good idea, you choose the color.

A: What about white?

B: I think white spots easily.
번역)

A: 자기야, 방 페인트 새로 칠해야겠어.

B: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 색을 골라봐(또는,어떤 색이 마음에 들어?).

A: 흰색 어때?

B: 내 생각에 흰색은 때가 너무 잘길 것 같아.

덧붙여)

Remove oil spots from the shirts.
처럼 spots 은 '명사'로 '점, 얼룩' 이라는 뜻이 있고 본문에서처럼 '동사'형으로 '얼룩지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Wall Mart 에 가본적 있어(에서 물건 사본적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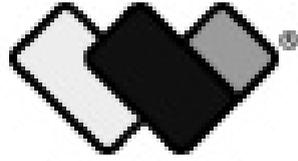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주부들은 가족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살림살이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니 자연 '물건 값은 어디가 싸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Topic: "Wall Mart 에 가본적 있어(에서 물건 사본적 있어)?"

Have you been to Wall Mart?

주제연구)

해석을 하실 때 have been to 표현을 단순히 '~에 가본적 있어?(단순경험)'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다양하고 넓게 보세요. 예를 들어 "Have you been to Paris?" 를 단순히 "파리에 다녀온적 있어?" 라고 하지 말고 "파리 관광 가



Winglish.com

봤어?"해 보면 대화의 분위기가 더 살지요.

A: Have you been to Wall Mart?

B: Yes, I have.

A: How is it? Is it cheaper than Shopper's Ville.

B: About the same I think.

번역)

A: 월마트에서 물건 사본적 있어?

B: 응, 있어.

A: 어때(물건 값이 어때)? 샤피스 빌(마트 이름)보다 더 싸니?

B: 내 생각에 비슷한 거 같더라고.

*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야 해요.

미국 가정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double income couple)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부인들이 슈퍼에 갈 시간이 많지 않고 슈퍼의 위치도 주택가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엔 부부가 함께 일주일치의 식료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죠. (미국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냉장고가 큰 이유는 일주일치의 식료품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Topic: " 일주일치 식료품을 사야 해요."

I have to buy a week's worth of groceries.

주제연구)

grocery 는 말 그대로 '식료품'입니다. 물론 음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래서 grocery store 라고 하면 '식료품 가게'를 의미합니다. 회화에서 Where do you usually go grocery shopping?은 "장은 주로 어디서 보세요?"입니다. 덧붙여 run a grocery 라면 '식료품점을 운영하다'입니다.

A: Linda, any plans for this weekend?

B: Not really, I have to go shopping.

A: What will you buy?

B: A week's worth of groceries.
번역)

A: 린다,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계획 있어?

B: 별로, 장 보러 가야 해.

A: 뭐 살건데?

B: 일주일치 식료품.



MOVIE

매트릭스 2: 리로디드

감독: 래리 워쇼스키

주연: 키아누 리브스

<매트릭스2>는 기계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네오가 하늘을 날아오르던 1편의 엔딩에서 시작된다. 업그레이드된 기계들이 지상 최후의 인간 도시 시온을 찾아내고, 네오가 사흘 내에 그들을 막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을 하게 되는 상황을 담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매트릭스에 관한 복잡한 진실도 발견한다.



TOP CHARTS

SEVEN

와줘

2. 나 어떡해 / 베이비복스
3. Break Away / Big Mama
4. 친구 / 안재욱
5. 그랬나봐 / 김형중
6. MR. A-JO / As One
7. Desperado / 포지션
8. 꽃 / 이승환
9. 반지 / F-IV
10. 처음 그 날처럼 / 박용하
11. 리라 / WEST
12. 내 삶의 반 / 한경일
13. 그대 돌아오면 / 거미

최초의 여자 카투사 탄생?

오 주 은

지난 4월 16일, 만능 엔터테이너 오 주은이 'TV 내무반-신고합니다' 카투사편을 촬영하기 위해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호비를 찾았다. 이날 본 기자는 MC면 MC, 연기면 연기, 그리고 CF까지 모두 완벽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끼를 지닌 그녀를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



놓게 되었지요.

-별명

제가 별명이 진짜 많아요. 학창시절부터 시작하면 수많은 별명이 붙었었지요. 이름 때문에 생긴 별명 중에는 '주은'에 액센트를 넣어서 '쥘'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또 '태양 속으로' 촬영을 할 때에는 스텝분들이 제 눈이 너무 크다고 '놀란 토끼'라고 부르셨어요. 이 외에도 눈 큰 동물들은 다 제 별명이 되었지요.

토끼, 다람쥐, 강아지 등등이요. 정작 저는 고양이라는 별명을 갖고 싶은데 아무도 고양이를 닮았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웃음)

-드라마와 CF, MC 중 가장 매력이 있는 것?

모두 각각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CF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CF로 데뷔했으니 나름대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MC는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 애정을 느끼고 있고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굳이 고르자면 드라마가 가장 끌려요. MC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면서 제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직은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제 실제 모습을 보이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쑥스러워요. 이에 비해 대본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표현해내는 것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군대와 관련하여 많은 촬영을 했는데...

'TV 내무반 신고합니다'를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드라마 '태양 속으로'에 캐스팅됐어요. 그 때 제가 생각한 게 '이게 무슨 운명인가? 왜 자꾸 군대와 관련된 쪽으로 갈까?' 예요. 제가 확실히 제복하고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카드 CF를 찍을 때도 여경으로 나와서 경찰 제복을 입었고, '태양 속으로'에서는 간호사 역이었으니 간호사 제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촬영 중에는 이렇게 군복도 입게 되고요. 신기하고 좋아요.

-어릴 적 꿈

초등학교 때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에는 스튜어디스가 꿈이었고요. 아직도 스튜어디스가 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에 제 친구가 스튜어디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면 어떤 느낌?

카메라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편해요. 처음에 카메라 앞에 섰을 때에도 신기하게 긴장하고 조마조마하는 그런 느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제 자신을 더 보여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생겨요. 아마 이런 걸 '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경력이 짧아서 어설피른 점이 분명 많이 있지만 적어도 떨려서 실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연예인

제가 김을동 선배님께 잠시 연기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 때 수업을 받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후부터 김을동 선배님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자 연예인보다 여자 연예인을 더 좋아하는데요, 항상 좋아하는 연예인은 바뀌어요. 그때그때마다 그 연예인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연기자 외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지만요, 굳이 말하자면 파티 플래너? 파티 플래너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파티에 초대하고 파티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일단 제가 맡고 있는 'TV 내무반 신고합니다!'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즈음에 스크린을 통해서 연기하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상형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좋아해요. 제가 운동은 잘 못하지만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저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요.

-미군부대에서 'TV 내무반' 촬영을 마친 후 소감

재미있었어요! 촬영하면서 카투사분들이랑 미군들과 함께 운동도 해보았는데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다들 운동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전차도 생전 처음으로 타보았어요. 부대시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카투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친구 중에도 카



카투사 신문 윤종필

투사가 있어요. 오늘 카투사분들을 만나 보니까 다들 똑똑하시고 착하시고 또 모든 일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장에 오기 전에 카투사분들은 미군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서로 경계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서로 친하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까 무척 좋네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우선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하셔서 저와 같은 민간인들이 편하게 발 뺀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국군과 미군들이 무리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도 그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하시는 카투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저, 주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일병 윤종필

다. 그 어느 카투사보다 카투사 군복이 잘 어울리는 그녀와의 인터뷰 내내 푹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녀를 보며 그녀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오주은이고요, 동덕여대에 재학 중입니다.

-데뷔하게 된 계기

처음에는 CF로 데뷔하게 되었어요. 맥주 광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CF를 감독하셨던 분이 '산타페' CF를 맡으셨는데 맥주 광고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는 저를 지목하셔서 '산타페' CF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 CF를 통해서 제 얼굴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예인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는 분의 소개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



카투사 신문 윤종필



프로필
이름: 오주은
생일: 1980/7/7
키: 166cm
몸무게: 46kg
학교: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카투사 신문 윤종필